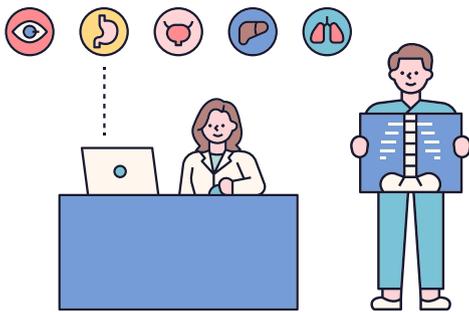


간편한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5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간호사가 환자 복부 절개·심장 마사지

‘국제 간호사의날’ 맞아 불법의료 실태 증언

5인의 간호사는 국제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처방, 수술·시술·처치, 진료기록지 작성 등의 사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수많은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간호사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무서운 I’가 온다

‘인플레이션 공포… 소비자물가 4.2% 급등, 13년 만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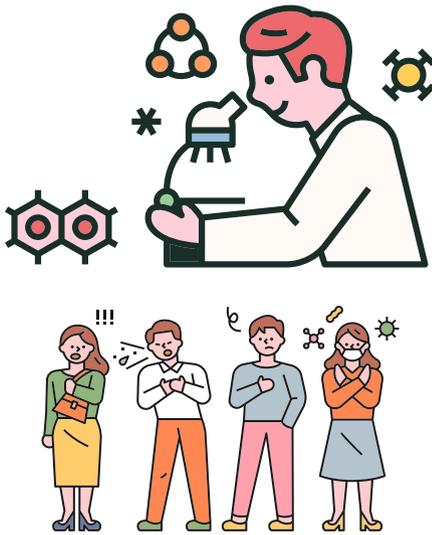
글로벌경제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거대 경제권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 남미 등에서도 물가가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 그간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린 반면, 반도체·철광석 등 각종 원자재·부품 공급망의 복구 지연과 병목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이다. 주식 등 자산 거품이 꺼지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 “추락사 등 후진적 산재 마음 아파”…TF 구성 지시

‘이선호 씨 등 잇단 산재사고 의식…이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파다”며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노동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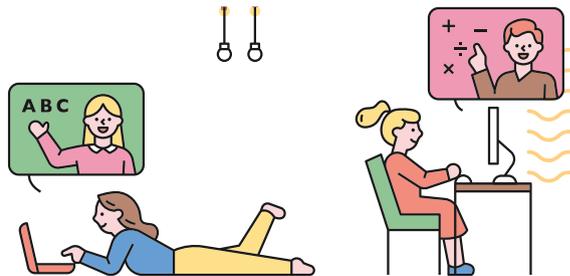
확진자 넷 중 한 명 '변이 감염'...1주새 갑절 치솟아

울산 '영국발' 부천 '남아공발' 비상

코로나19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지역사회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검출률'이 일주일 전 12.8%에서 한주 새 25%로 갑절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주로 영국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확산 속도를 높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남아공·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심상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가운데 567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141명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로나에 공교육 붕괴... 교우관계·학력 악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수업 1년. 한국교총이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우리 공교육이 봉착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은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 인식 저하'(35.1%)를 많이 꼽았다. 이어 '취약계층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심화'(27.7%), '학력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 증가'(21.6%) 순이었다. 학력 격차는 '심증'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를 전후해 서울 382개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중위권(B학점)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약 10%로 대폭 감소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인 현황

※ 주요 변이: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